

태양기전, 삼성電 휴대폰 출하증가 수혜-동양證

이규창 기자 | 08/29 08:41 | 조회 577

오늘의 인기 태그 : [문화](#) [시중은행](#) [한화그룹](#) [하나은행](#) [모하비](#)

태그란?

태양기전 투자포인트

삼성전자내 M/S유지로 실적 개선 지속될 전망

시기배당률	ROE	PBR	PER
0.0	15.0	0.6	3.9

주가-현체가, 재무제표-최근결산

[기업분석 심층보고서 보기](#)

동양종금증권은 29일 태양기전(4,580원 ▼100 -2.1%)에 대해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증가로 2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삼성전자 휴대폰 윈도우 시장점유율(M/S)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태양기전은 2분기 매출액 164억원,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 13.4%를 달성했다.

김현중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개선 요인으로 △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증가 △카메라 윈도우 및 도파로 시트(확산판 : 키패드 밑단에 적용해 LED 수 절감) 등 신제품 매출증가 △자체 하드코팅 자재비율 15%로 상승해 원가절감 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었다.

김 연구원은 "태양기전은 삼성전자 휴대폰 윈도우 M/S 1위로 수요량의 50~60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M/S는 유지될 것"이라며 "삼성전자의 중저가폰 확대전략으로 부품업체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아크릴 하드코팅 기술을 보유한 동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"이라고 밝혔다.

또한 "일체형 카메라 윈도우 및 도파로 시트 등 신제품군들의 향후 성장성도 높다"며 "부품업체들에게 요구하는 단가 인하 폭이 동사의 원가절감으로 상쇄가능하며 수익성이 기존 제품 대비 좋은 신제품의 매출비중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"이라고 밝혔다.

김 연구원은 "이를 감안한 동사의 밸류에이션(Valuation)은 시장대비, 동종업체 대비 매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"며 "그러나 중장기적인 전망은 삼성전자의 단가인하 시 수익성 급락 위험이 항상 존재해 불확실하다"고 밝혔다. 현 신제품군들이 니치마켓 성격이 강하고 고객다변화가 힘든 상황도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.

<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>